

심사위원과 행정위원은 윤종대가 있는 불교신문사!  
**윤종대를 돌려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선행하라**  
 (054) 655-1011,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산  
 Tel. 02)720-8489

## 앞서가는 생명과학 “불교적 관점 정립 시급”

황우석 교수 등 “윤회사상이 연구배경” 언급  
 불교 등 종교계 “정확한 교리 이해 앞서야”

한국의 황우석 · 문신용 박사팀은 인간배아 복제를 통해 줄기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97년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인간복제의 길이 멀다고만 여겼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됐다.

이처럼 생명과학은 뛰어 가고 있지만 불교의 대응은 황소겉줄이다. 일부 불교집단이 특집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산발적인 세미나도 있었지만 생명과학에 대한 불교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여전히 선명하지 못하다. 이에 따라 복제 문제 등 생명과학에 대한 불교 교리적 · 윤리적 측면에서의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우석 · 문신용 교수의 배아복제를 통한 줄기세포 추출은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뛰어난 성과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윤회사상이 연구배경”이라거나 “복제는 윤회에 대한 또 다른 사고방식”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교적 측면에서는 이렇듯 적지 않다. **권경자 기자 4 · 15번**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 우희중 교수(서울대 수의학)는 황우석 · 문신용 교수의 이런 견해에 대해 나름대로

의 의견을 밝히면서 공통적으로 “지금 복제 등의 문제에 대한 불교 교리적 관점을 명확히 정립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이 문제에 대한 불교의 관점이 설득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복제문제에 대한 명확한 논리를 갖춰야만 불교 교리나 사상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시대상황에 맞는 해석을 내놓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명과학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다. 창조론에 입각한 기독교계에서는 인간의 의도에 따라 조작되고 생산되는 복제를 하 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대응에 있어서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가톨릭의 경우 전 교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고, 각 교구에도 담당자를 두고 신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

원불교는 5년여 전부터 최고의결기구인 ‘수위단회’ 산하에 연구단체를 두고 전문가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생명과학에 대한 교리적 해석과 사회에 끼칠 영향력 등을 집중

연구하고 있고, 개신교는 NGO 단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톨릭 서울대학교 홍보실 이인화 수녀는 “복제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며, 신도들도 이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있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종교가 이런 연구에 나서고 있는 것은 생명과학에서 파생되는 생명관과 윤리가치의 변화에 명확한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종교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다.

호진 스님은 “생명 창조 문제, 윤리 문제 등의 인생 전반에 대해 새로운 답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점점 거세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종교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불교학자와 불자 과학자들은 특히, “복제 문제와 관련해 윤회이론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일 사상이나 수행과도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미산 스님은 “지난해 발족한 불교생명윤리연구소를 종단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해 책자도 발간하고 신도 교육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uhan@buddhania.com



3·1절, 그날의 함성!  
 3·1절 85주년을 맞아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수 그린 태극기를 들고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 템플스테이 업무 전담기구 출범

조계종 포교부장이 단장

템플스테이 사업단이 독립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템플스테이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 불교전통문화체험 사업단(템플스테이 사업단)’을 3월 첫째주에 출범시킨다.

포교원 산하 기구로 출범하게 될 템플스테이 사업단은 포교부장을 단장으로 프로그램 개발, 홍보, 사찰/운영 인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3월 한달 동안 신청 접수와 심사, 실사를 통해 4월 초 운영사찰 30여 곳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상시 운영 사찰과 주 단위 운영 사찰, 월 2회 이상 운영 사찰 3개 그룹으로 나눠 운영하며, 참선 위주 사찰, 외국인 수련 전문 사찰, 전통 불교의식 및 문화체험 위주의 사찰, 암자순례 및 휴식전문 사찰 등 사찰별로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가족 및 그룹 등 참가자 성격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사업단장 일관 스님(포교원 포교부장)은 “일원화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찰 문화와 선 수행 체험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억원의 운영 지원금과 함께 올해부터 한 해 20억원,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운영사찰 시설 개선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권경진 기자 jinny@buddhania.com

## 금강산 신계사 4월부터 ‘복원’

조계종 추진본부 결성, 4년간 12棟 불사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금강산 신계사지 내 법당 및 요사채 복원을 위한 밀그림이 그려졌다. ‘신계사 복원본사 추진본부’가 결성되고, 올 4월부터 4년 동안 85억원 예산으로 12개동이 복원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부장(총무원장), 추진위원장, 집행위원장(사회부장) 등으로 구성된 추진본부 조직도를 발표했다.

복원본사는 1단계로 올 4월부터 삼층석탑과 대웅전부터 시작되며, 2단계 금강동문 · 칠성각 · 만세루 · 수승전 · 3단계 어실각 · 극락전 · 나한전, 4단계 회승전 · 대향각 · 종각 등 총 12개 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원장, 집행위원장(사회부장) 등으로 구성된 추진본부 조직도를 발표했다. 복원본사는 1단계로 올 4월부터 삼층석탑과 대웅전부터 시작되며, 2단계 금강동문 · 칠성각 · 만세루 · 수승전 · 3단계 어실각 · 극락전 · 나한전, 4단계 회승전 · 대향각 · 종각 등 총 12개 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n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안내**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신청**

- 전화요금 합산 납부 신청
  - 전화요금에 구독료를 합산하여 납부
  - 한국통신 전화번호와 전화가입자 이름만 전화로 통보하시면 신청완료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 납부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 1구좌 1천원 범위서 후원 동참하세요
  -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복지기관 등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 월 구독료 : 5천원
  - 구독 · 법보시 동참 문의 (지역) 02)737-0090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 벗 풍경소리가 공동으로 ‘한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법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나 연구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

일가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헌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합니다.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할’**

모든 쉬고 마음도 쉬어라  
 마음을 쉬면 깨치는 것

요즘 수행의 봄

그림 · 조태호

- 무어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

선원장 초청 대법회    합주 스님 ‘마음은 무엇인가’ 3월 7일 오전 10시 조계사 대웅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9번

각 종단 모든 공고    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실용시아 등록 의자출회    보관상태

**중 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 홈페이지 : www.chanduk.com    만월등 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안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